

## 제목 : 눈먼 바울

본문 : 행 9:1-9

안광복 목사 온누리교회 목사

사도바울은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가량을 썼고,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 지역을 복음전도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 사울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 중에선 가장 촉망받았던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뭉쳐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잘못된 지식, 그릇된 신념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주후 10년 내지 15년께 길리기아의 도읍인 다소에서 출생. 다소는 사울 시대에 인구가 50만의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규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옛 베냐민 지파의 영웅인 사울을 본받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율법 공부를 시작하여 히브리인답게 연단되었고, 회당에서 3년 동안 정규 과정을 수학하며 히브리어로 율법과 예언서를 통달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로마 시민이자, 동시에 경건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랍비를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께서 내 아들은 목사로 만들어야지 하며 서원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랍비를 양성하는 센터는 역시 예루살렘이었기에, 그는 청소년 시기에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신학교에 진학을 한 셈이지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힐렐이라는 학자- 구전 율법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킨 당대 최고의 학자-의 손자였습니다. 훗날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7명의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랍비로 알려졌는데, 바로 사울은 그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과 바리새파에서 촉망받는 젊은이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7장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려는 자들이 돌을 던지려고 베틀어서 말긴 겉옷을 지키는 청년으로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7장 57-58절...

옷을 맡겼다는 것은 젊은 바리새인 중 리더 역할을 했던 그가 처형개시 신호를 보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그 처형방법에는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는 스테반의 참혹한 죽음에 관여한 뒤로 광신적인 조직 활동을 확대했고, 더욱 매진했습니다.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남녀를 무론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 옥에 넘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잔멸하다는 동사의 뜻 *lomainomai*(루매이노마이)는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도 잔인했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여자까지 마구 잡아다 옥에 넣었겠습니까? 이런 열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핍박도 부족하여, 다메섹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흘

어진 크리스천들이 다메섹에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오기 위해 자진하여 대제사장의 공인을 받은 뒤, 일행을 거느리고 다마스쿠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신념과 유대인으로서 받은 교육과 사상대로, 기독교도들을 잔해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 열심과 확신을 갖고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정오의 시간에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는 그 빛 아래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니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솟구쳐 오는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에 그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 소리는 사울 자신의 모든 삶의 원칙과 신념, 종교와 규율, 꿈과 비전, 열정과 간절한 소망을 송두리째 꼬꾸라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가지 질문은 사울의 삶 전체를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였습니다.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구십니까? 앞서 언급한대로 사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약의 토라, 율법을 읽었고, 구약의 전통에 익숙했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전통적인 유대인의 아이들처럼 다섯 살이 될 때 성서를 읽었고, 열 살이 될 때 미쉬나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인데 모세 율법에 버금가는 권위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열 세살이 되면서 구약의 계명을 지켜야 했고, 열 다섯살이 되면서 탈무드를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작 그 목소리의 주인공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라오면서 배운, 모든 지식, 모든 율법과 모든 경전의 내용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분석해 봐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웬지 아십니까? 인격체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사상과 철학으로만, 종교적 관습과 전통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해석의 눈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울이 비록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안경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질문임과 동시에, 사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전제로, 사울은 자신이 율법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대교의 영웅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의 대표라고 자만했었습니다. 자신만이 유대교를 철저히 지킬 수 있다고 여겼고, 그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잘못된 신념과 생각을 갖고 살았었음을 발견합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흐릿한 금속표면 앞에선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맑게 닦여진 전면 거울이 있을

때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거울이십니다. 그 진리의 거울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만, 내 자신의 실존의 모습, 바른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드디어 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진리의 거울 되시는 그 분 앞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의인도 아니고, 유대교의 영웅도 아닌, 말할 수 없이 흉측한 죄인이요, 강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복음의 훼방자요, 핍박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대적자였고, 원수같은 자였던 것입니다. 딤펈 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나는 죄인중의 괴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규정하시는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까요?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바울의 회심장면을 기록해 놓은 또 다른 장인 행22:10절 말씀입니다.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은 주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알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라, 구약의 율법말씀은 언제 읽어야 하는지, 회당에는 언제 가야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하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뻑뻑한 스케줄 노트를 갖고 다니는 인기 연예인처럼, 그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일초도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무의미한 일에 관심 두는 일을 싫어했던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자신의 정체의식을 일깨워주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사명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한 고등학생이 소개가 되었습니다.17세 남자 고교생 민혁(가명)은 유치원 때부터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병원놀이를 하면 언제나 간호사역을 했고, 늘 인형을 안고 자고 소꿉놀이 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하지만 그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몽정을 하는 등 남성적 변화가 나타나자 당황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년은 하교 후에는 여장을 하고, 여성 속옷을 구입하고, 화장품가게를 드나드는 것을 취미요, 유일한 낙으로 삼고 생활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신체는 남자인데, 마음과 정서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 친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그에 걸 맞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악한 사이비교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노라...사울은 너무나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었고, 크나큰 오류와 실패를 야기 시킨 착각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바라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울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행 9장 8-9절...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뺏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은 뺏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 이것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이성과 지혜, 종교적 신념으로 중무장하고 있던 그였지만, 영적으로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모습의 영적 소경이었습니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또는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면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역사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로 그 실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를 왜 골프천재라고 합니까? 그가 단순히 힘이 좋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을 더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보낼 수 있는 퍼팅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구의 고수들은 하수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봅니다. 분명히 내가 맞춰야 될 빨간공이 하얀공에 가려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그 뒤에 있는 쿠션들, 벽을 이용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후에 하얀공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수가 볼 수 없는 길을 고수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눈은 역시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그 순간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율법과 전통, 잘못된 교리와 신념에 눈이 멀어 있던 사울이, 이제 복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게 됩니다.

눈먼 사울이 언제 시력을 회복했습니까?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비로소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평생 눈멀게 만들었던 비늘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짓과 허위, 교만과 위선, 착각과 자기 의로 응축된 하나의 비늘이 그의 눈에서 벗어지면서 그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는 직가라는 곳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굽은 길로 다녔던 사울이었습니다. 평생을 뺨뺨어진 신념으로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직가라는 거리, Straight street, 똑바로 펴진 길이라는 곳에서 바른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멋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아니 나의 인생 속에 본문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사울을 눈멀게 했던 그 비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눈은 뺏으나 볼 수 없었던 사울처럼, 그의 평생을 굽은 길로 다니게 했던 크고 작은 비늘들이 우리 눈 안에 아직까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무엇인가에 집착하여, 거짓된 착각과 신념 속에서 잘못된 방향, 헛된 수고를 기울였다면 속히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옳은 일들이었는지를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들, 계획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주만이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올해의 계획, 소망, 이기적인 생각에 의한 기도제목들이 아니라...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올 한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

지 알게 하옵소서....잘못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만이라도 금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헛된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영똥한 노력,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다면, 사울처럼 저를 막아주십시오...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2006년도, 올 한해, 분명한 내 자신의 정체성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영적소경이 되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